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강진호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스키마 이론을 통한
소설 지도 방안 연구

2009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유 현 애

스키마 이론을 통한
소설 지도 방안 연구

강진호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8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유 현 애

인 준 서

유현애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①

심사위원 _____ ①

심사위원 _____ ①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 문 개 요

지금까지의 문학교육은 학습자가 중심인 문학교육이 아니라 교사 중심적인 문학교육, 시험 중심적인 문학교육, 다시 말해 시험을 보기 위해 해석되어지는 지식 전달 위주의 문학교육이 이루어져왔다. 하지만 진정한 문학교육이란 독자가 작품을 읽고 그 작품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해하고 감상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다.

우리는 독자가 문학작품에 대한 흥미와 관심으로 작품을 접하여 작품을 읽고 그 작품을 체험한다고 본다. 하지만 학생들이 접하는 문학작품은 교과서 속의 작품으로 한정되어 있고 교사는 교과서에 실린 문학작품을 학생들에게 읽혀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학생들이 어쩔 수 없이 정해진 교과서 작품을 읽더라도 작품에 대한 흥미는 유발되어야 하며 또 작품을 각자의 체험을 바탕으로 감상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능동성과 주체성을 강조하는 스키마 이론을 통한 학습법 연구를 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학습법 연구에는 스키마 활성화 방안이 적합한 지도방안이라 생각한다. 스키마 이론을 통해서 살펴보면 스키마 이론은 텍스트가 그 자체로 의미를 전달할 수 없고 독자가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 독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스키마를 통해서 작품의 의미를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다. 이는 작품을 읽을 때 독자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스키마를 통해서 작품을 읽는 것이다. 때문에 교사는 이미 작품을 읽을 독자, 즉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스키마를 활성화 시키는 지도방법으로 문학작품(여기서는 소설작품)을 지도한다면 이는 학생들의 능동성과 주체성을 살려주는 지도방안이 될 것이다. 스키마를 활성화 시키는 수업지도 방법은 학생들이 문학작품을 대할 때 학교 밖에서까지도 스스로 주체가 되어 작품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스키마를 활성화 시키는 일반적인 지도방법을 가지고 소설 작품

에 적용하여 실제 소설지도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1장 서론에서는 연구목적과 방법 그리고 선행 연구사를 검토해 보았다.

2장 스키마 이론과 소설 교육에서는 먼저 스키마의 개념과 유형을 알아보고 스키마이론과 그 기능, 또 스키마가 소설지도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다.

3장 소설교육에서 스키마 활용 방안에서는 스키마 활성화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스키마 활성화 지도 방법 중 일반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다.

4장 스키마 활성화를 통한 소설지도의 실제에서는 직접 구안한 교수 학습 모형을 먼저 제시하고 3장에서 살펴보았던 지도방법을 실제 소설 작품에 적용하였다.

5장 결론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마무리 정리하였다. 또한 앞으로 스키마 이론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목 차

논문 개요

I. 서론	1
1. 연구 목적	1
2. 선행 연구사 검토	2
3. 연구 방법	7
II. 스키마 이론과 소셜 교육	10
1. 스키마 개념과 유형	10
2. 스키마 이론과 소셜 교육	14
III. 소셜 교육에서 스키마 활용 방안	19
1. 스키마 활성화 필요성	19
2. 스키마 활성화 지도방법	20
IV. 스키마 활성화를 통한 소셜지도의 실제	26
1. (소셜) 교수 - 학습 모형	26
2. 스키마 활성화를 통한 소셜지도의 실제	30
V. 결론	48

참 고 문 헌

ABSTRACT

표 목 차

<표1> 소설 교수 - 학습 모형	27
<표2> 교수 학습 계획서	32

그 립 목 차

<그림1> ‘원미동 사람들’ 의 거리	36
<그림2> ‘원미동 사람들’ 삽화	40

<학 습 활 동 지> 목 차

<학습 활동지 1> 읽기 전 단계 질문하기	35
<학습 활동지 2> 읽기 전 단계 연상하기	38
<학습 활동지 3> 읽기 중 단계 추론하기	41
<학습 활동지 4> 읽기 중 단계 상호작용하기	43
<학습 활동지 5> 읽기 후 단계 재구성하기	45
<학습 활동지 6> 읽기 후 단계 평가하기	46

I. 서 론

1. 연구 목적

문학을 배우는 일은 삶을 배우는 일이다. 문학은 삶이란 주제를 가지고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 그간 문학 교육에 대한 관심은 적지 않은 연구로 그 성과를 알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연구와 교육과정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작 교육 현장에서의 변화는 그리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물론 교육과정의 변화가 교육 현장의 변화까지 초래하기에는 현장의 여러 가지 여건을 문제로 삼을 수 있다. 또한 교육과정의 개정이 현교육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뒤로한 채 개정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도 생각해 볼 문제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현 교육과정과 교육현장 속에서 그래도 학습자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교수법 연구는 쉬지 않고 연구해야 할 과제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문학을 가르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읽기이다.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읽기 교육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학 교육은 읽는 행위가 기본적으로 포함되며 학습자가 좀 더 능동적인 읽기를 할 수 있도록 교사는 읽기 과정을 통해서 학습자의 생각을 좀 더 체계적이고 구조화 시킬 수 있는 학습법 연구를 해야 한다.

문학과 문학 교육은 작품을 읽는 것에서 시작된다. 소설 교육도 마찬가지이다. 소설을 읽게 하는 동기화에서 소설 교육은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읽기 태도의 변화는 소설 교육의 시작이며 교사의 가르침에 읽기가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읽기는 어떻게 이루어 져야 하는가? 읽기는 독자가 주어진 글

에서 의미를 구성해 나가는 역동적인 과정이며, 내용적 · 형식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많은 정보 자료들을 조정하는 데 필요한 복합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독자는 글에 나타난 여러 가지 실마리를 종합하여 독자 나름의 관점에서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의미를 구성해 나간다. 근본적으로 글이란 의미가 완성되어 있는 결과의 대상이 아니라 독자의 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구체적인 의미가 완성되어 있지 않은 미완의 대상이라 할 수 있다.¹⁾ 글은 독자가 읽어가는 과정에서 그 글이 완성되는 것이다. 글을 읽는 행위는 독자의 능동적인 행위로 독자는 글을 읽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 내용의 의미를 추론하며 계속 확장하게 된다. 그러한 읽기는 글과 독자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이다. 때문에 읽기에서는 독자의 능동적인 행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효과적인 읽기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습자 및 학습자와 관련된 요소를 잘 이해해야만 하고 읽기 지도에 있어서도 학습자라는 요소를 고려해야 효과적인 지도를 할 수 있다. 학습자와 관련된 요소는 크게 학습자의 언어적 능력, 학습자의 배경 지식 및 학습자의 정의적 측면(동기, 흥미, 태도, 욕구, 불안 등)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²⁾ 이러한 생각 속에서 본 연구는 학습자의 능동성과 배경지식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배경지식을 나타내는 스키마와 그 이론을 바탕으로 소설 지도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선행 연구사 검토

스키마란 말은 칸트(Kant)에서부터 기원한다.³⁾ 칸트(Kant)에 의하면 한

1) 최현섭 외, 『국어교육학개론』, 삼지원, 1996, pp.259~266.

2) 한진석 외, 「Schema 이론과 읽기 지도」, 『인문과학논문집 제29집』, 대전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0, p.88.

사람의 경험이 기억 속에 축적되고, 그 축적된 여러 경험들의 공통적인 요소가 스키마라고 한다. 인지 심리학 분야의 바틀렛(Bartlett)은 스키마의 개념을 현대적 의미로 처음 사용하였다. 스키마 이론은 인지 심리학자들에 의하여 1970년대 이후 연구 발전된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읽기에 관한 인지적 연구 성과들이 소개 되면서 인지심리학은 우리의 읽기 교육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이는 제5차 교육과정에서부터 나타난다. 5차 교육과정 내용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인지심리학의 연구들을 참조하였고 이와 같은 영향은 제6차와 제7차 교육과정에 이르기 까지 계속되었다. 인지 심리학 연구의 도입은, 텍스트 내용에 대한 교사의 해설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 이전의 읽기 교육을 반성하고 읽기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⁴⁾해 주었다. 이러한 인지적 읽기 모델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론이 스키마 이론이라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읽기 교육에 스키마 이론이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볼 수 있다.

스키마 이론은 영어 교육에 있어서도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⁵⁾ 영어 읽기 교육에 있어서 스키마 이론은 독해 전 활동 중에 학습자들의 스키마를 자극시켜서 배경지식을 활성화 시키는 방법으로 활용되었다. 특히 영어교육에서는 독해능력이 읽기 기능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라기보다는 사전지식의

3) 칸트 철학에서는 스키마의 개념을 '선험(先驗)적 도식'이라고 한다. 선험적이란 경험에 의해 대상을 인식하기 전에 선천적으로 대상을 인식하는 힘이 인간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이삼형, 「인지적 읽기 모델의 비판적 고찰 : 스키마 이론의 독해관과 읽기 지도 모델을 중심으로」, 독서연구제4호, 한국독서학회, 1999, p.354.

5) 오장원, 「스키마 이론에 의한 그림 제시가 고등학생의 영어 청취 이해력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이명희, 「스키마 이론을 적용한 독해력 신장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김기원, 「스키마 이론과 영어독해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조진경, 「스키마 이론에 기반한 수능 영어 독해 문학 분석과 지도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김명숙, 「스키마 이론을 적용한 읽기 활동이 고등학생의 영어 읽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주경아, 「스키마 활용이 영어 독해 이해에 미치는 영향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차이에서 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스키마 이론이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유용한 것으로 입증⁶⁾되어 많은 연구가 있었다. 스키마 이론은 국어교육에서와 같이 영어교육에서도 그 교육의 방향 변화에서부터 시작된다. 스키마 이론을 통해서 읽기 영역은 텍스트 중심의 관점이 독자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독자가 텍스트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관심을 갖게 해주었다.

국어교육에 있어서 스키마 이론은 읽기 교육에 큰 영향⁷⁾⁸⁾을 주는데 읽기 지도에서 특히 읽기 전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었다. 기존의 읽기 지도는 읽기 전 활동이 글의 내용을 읽기 전 단순한 도입 단계로 보고 그 중요성을 간과하였다. 하지만 독자의 배경지식이 독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스키마 이론을 바탕으로 한 읽기 지도는 읽기 전 활동으로 독자의 배경지식의 점검과 활성화가 강조되었다. 이점은 기존의 읽기 지도와 다른 점이다. 이러한 읽기 전 배경지식의 활성화에 대한 연구는 국어교육에서 도입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시켜주어 읽기 교육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읽기 교육에 큰 영향을 주고 읽기 전 활동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시켜준 스키마 이론은 대체로 읽기지도, 소설지도, 독서지도 방안에 적용되어 연구되었다. 스키마 이론을 중심으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 6) 김주미, 「스키마 활성화를 통한 효과적인 영어 읽기 방안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p.11.
- 7) 현재 제7차 과정 국어과 내용에서도 스키마 이론이 바탕이 된 읽기 교육내용이 제시된다. 이는 스키마 이론이 읽기 이론의 이론적 배경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8) 박태호, 「반응중심 문학감상 전략과 교수-학습방법」, 『청람어문학 제13집』, 청람어문학회, 1995.
 이삼형, 「스키마 이론과 읽기 지도」, 『한양대학교 한양어문 연구회 제13집』, 한양어문연구, 1995.
 이삼형, 「인지적 읽기 모델의 비판적 고찰 : 스키마 이론의 독해관과 읽기 지도 모델을 중심으로」, 『독서연구 제4호』, 한국독서학회, 1996.
 최정순, 「학습이론과 이독성(易讀性)에 바탕한 읽기수업 연구」, 『말 23/24집』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1999.
 김도담, 「텍스트 이해 교육의 접근 관점 고찰」, 『국어교육학 연구 제15집』, 국어교육학회, 2002.
 김도담, 「독자의 의미 표상 방법 고찰」, 『한국초등국어교육 제25집』,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2004.

첫째, 효과적인 읽기 지도에 관한 연구⁹⁾이다. 이전의 읽기 교육에 대한 잘못된 교육방향을 새롭게 인식시켜준 인지적 읽기 모델의 대표적인 이론으로, 스키마 이론을 그 중심에 놓았다. 효과적인 읽기지도 방법으로 스키마의 유형을 형식스키마와 내용스키마로 나누어 각각 수업에 적용하였다. 또한 스키마 이론이 배경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론인 만큼 읽기 전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다양한 읽기 전 전략을 통한 읽기 지도 방안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면 예측 안내표, 양케이트, 질문표, 대조표, KWL차트, 의미지도, 빈칸 메우기, 단어 추측하기, 참·거짓가리기, 경계 어휘전략 등을 제시하여 기존의 읽기 교육에서와 달리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둘째, 학습자 중심 교육의 하나로 스키마 이론을 적용시킨 연구¹⁰⁾이다. 이는 스키마 이론이 독자의 능동성과 주체성을 강조하는 학습법이라 생각하고 독자반응이론이나 수용이론등과 같이 학습자 중심 이론의 하나로 취급하여 지도방안을 연구하였다. 대체로 소설을 지도하는 방안에서 활용되었으며 읽기 전 단계에서 학습자의 배경지식을 활성화시키고 점검하는 지도방안으로 스키마 이론이 활용되었다.

셋째, 스키마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¹¹⁾이다. 스키마 활성화는 학습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과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읽기 지도에 적용하는 방법이다. 교사는 학습자의 스키마를 활성화시킴으로써 학습자가 좀

9) 정병희, 「스키마 활성화를 통한 읽기 지도방법 연구 : 중학교 읽기 지도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정현미, 「스키마 유형에 기초한 읽기 지도 연구」,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여금령, 「스키마 활성화를 통한 읽기 지도 방안 연구」,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유영미, 「읽기 전 스키마 활성화 전략을 통한 읽기 지도 방안」,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10) 정정구, 「학습자 중심 교육의 이론과 실제 : 박완서의 ‘옥상의 민들레꽃’을 대상으로」, 서울시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남유진, 「소설지도방안 연구 : 김유정의 ‘만무방’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11) 김현정, 「읽기 교육에서의 스키마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강성희, 「질문을 통한 스키마의 활성화 방안 연구」,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더 주체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준다. 스키마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질문이나 연상, 예견, 추론 등의 방법이 제시되었으며 이를 문학작품과 읽기 자료에 적용하였다. 읽기 교육에서 스키마의 활성화는 필수적인 것이며 스키마의 활성화를 통해 읽기 지도가 이루어진다면 학습자의 능동적인 읽기가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연구 외에도 도입 수업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스키마를 통한 도입 수업을 제시하여 실험한 연구¹²⁾와 독서 지도 과정에서의 스키마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ICT를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¹³⁾한 것이 있다. 또한 소설작품지도에 있어서 스키마 이론을 언급하고 작품에 적용한 연구¹⁴⁾도 찾아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스키마 이론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연구는 학습자의 경험과 배경지식, 능동성과 주체성에 중점을 두고 지도 방안을 연구하였다. 스키마 이론에서는 배경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학습지도 단계에서 대부분 읽기 전 단계인 도입 단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학습자 중심 교육의 하나로 스키마 이론을 적용시킨 연구가 그리하고 효과적인 읽기 지도에 관한 연구 또한 기존의 도입 단계의 소홀함을 인식하여 그 지도 방법의 개선안으로 스키마 이론을 적용하였다. 또한 스키마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도 읽기 전 단계에 활용하기 좋은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물론 읽기 과정 전체에 스키마 이론을 적용한 연구도 있었지만 그 연구가 체계적이지 못하였다. 물론 스키마 이론을 통해서 인식된 배경지식의 중요성은 기존의 읽기 교육과 다른 도입부분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교육의 초점을 읽기 전 단계에 더 많은 비중을 두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독자가 가지고 있는 배경지식은 책

12) 김창호, 「스키마 활성화를 통한 국어과 단원 수업 도입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13) 김소현, 「독서지도 과정에서의 스키마 활성화를 위한 ICT 활용방안 연구」,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14) 박혜경, 「소설 작품의 학습지도 방법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을 읽기 전에만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책을 읽는 중에도 그 이후에도 독자는 자신의 배경지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때문에 스키마 이론이 배경지식을 강조하여 단순히 읽기 전 단계에만 그 이론을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읽기 중과 후에도 독자의 배경지식이 읽기에 영향을 미치게 됨을 인식하여 스키마를 활용하는 방안이 읽기 전반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스키마 이론이 읽기 전은 물론 읽기 중과 읽기 후에도 그 활용의 중요성을 두어야 한다. 기존의 읽기 수업에서 도입부분을 소홀히 다루었다면 도입부분을 강조하고 읽기 중과 읽기 후 지도방법도 스키마를 활용하는, 즉 학습자들의 배경지식 활용방안을 수업 지도 방안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배경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스키마를 활성화시키는 일반적인 방법을 가지고 기존에 도입 부분에 적용한 것을 읽기 중과 후에도 적용할 수 있음을 소설작품을 실제로 적용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읽기 전 활동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배경지식을 상기시키고 그것을 활성화하는 의미가 있다면 읽기 중 활동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배경지식과 신정보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새로운 배경지식을 창출하는 의미가 있다. 읽기 후 활동에는 읽기를 다 마치면서 경험할 수 있는 즉, 새로운 배경지식이 형성되는 시기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수업 전체에 스키마 활용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된다면 새로운 수업 지도 방법이 정착될 것이다.

3. 연구 방법

소설은 인생의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표현한 예술이다. 소설을 읽는다는 것은 바로 삶의 의미를 찾는 과정으로 파악할 수 있고, 글의 의미를 예측하고 새롭게 자신의 관점을 구성해 나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교실에서

교과서 소설을 읽는 주체는 학생이며 교사는 학생의 읽기를 돕는 역할을 한다. 또한 읽기는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들이 속해 있는 집단에 참여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소설교육은 소설 속에 내포되어 있는 작가의 의도나 의미를 학습자 스스로 감상하며 문학 세계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의 구절풀이나 언어 구조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교육 방식은 교사의 권위를 절대적이게 하고 학생은 단지 그 지식을 받아 암송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며 소설 교육 또한 학습자 주체에 능동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소설을 이해하고 감상해야 할 것이다. 스키마 이론은 이러한 학습자의 능동적인 측면을 중요시 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설 교육에 있어서 학습자 주체의 능동적인 의미를 부여함에 강조점을 두고 스키마 이론을 통한 소설지도 방안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소설 교육에서 스키마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에 앞서서 스키마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돕기 위해 스키마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려 한다. 또한 스키마의 이론과 소설교육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Ⅲ장에서는 소설 교육에서 스키마 활용방안으로 스키마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려 한다. 먼저 스키마 활성화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소설 교육에서 스키마의 활용방안으로 스키마를 활성화시키는 일반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다.

Ⅳ장에서는 일반적인 교수-학습 모형을 통하여 스키마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설 교수 학습 모형을 직접 구안하고자 한다. 또한 Ⅲ장에서 제시한 스키마 활성화 지도방법을 작품에 직접 적용하려 한다.

Ⅴ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요약, 정리하여 마무리하고, 남은 문제에 대한 논의를 펼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교사 중심의 수업을 지양하고, 학습자를 능동적으로 참여시키는 수업에 초점을 둔다. 이에 작품을 감상하고 이해하는데 학습자의 생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기에 교사는 소설을 지도하는데 있어서 학습자들의 스키마를 활성화시키는 교수-학습 모형을 구안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방법은 학습자 스스로 작품의 의미를 읽을 수 있는 능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학습자의 능동적인 작품 읽기에는 교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학습자의 생각을 이끌어낼 수 있는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학습법 연구가 더욱 많이 연구 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그 제한점이 크다고 본다. 실제로 현장에서 교수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론적 배경의 연구 또한 많이 미흡하다고 본다.

II. 스키마 이론과 소설 교육

1. 스키마의 개념과 유형

1) 스키마의 개념

스키마라는 말을 교육학 용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도식(圖式, schema)이라고 쓰인다. 이는 인지구조의 한 단위를 기술하기 위하여 피아제가 사용한 용어이다. 도식은 어떤 방법으로든 환경을 조작함으로써 이 환경에 적응하도록 하는 데에 관련되는 지식과 기술들을 포함한다. 감각운동 도식 또는 행동적 도식 등은 사물을 신체적으로 조작하는 것과 관련되며 언어적 도식은 언어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과 관계된다. 또한 인지적 도식은 과거의 경험들과 연관된 사상 및 기억들뿐만 아니라 사고와 문제해결의 목적으로 이러한 경험들을 조작하는데에 관련되는 논리적 및 기타 인지적 능력들을 포함시키고 있다.¹⁵⁾

스키마라는 말은 사전지식 또는 배경지식이라는 말로도 쓰인다. 현대적인 의미로 스키마의 개념을 처음 사용한 바틀렛(Bartlett)(1932)은 그의 저서 ‘기억’에서 스키마를 “과거 반응이나 경험의 능동적 조직”으로 보고 “고정되고 생명력 없는” 기억들의 피동적인 복구에 반대하였다.

그러나 독서 행위 더 나아가 인간 이해 현상에 대한 설명적 개념으로서 스키마가 이론적 체계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70년대부터이다. 인간의 인지현상을 컴퓨터에 모형화 하려고 하는 70년대 이래 인공지능연구가 그 한줄기이며, 이해, 학습, 기억을 통합된 일련의 독서 과정으로 보고 이 세 가지 현상을 하나의 개념(스키마)으로 설명하려는 인지심리학자들에 의한 독서 연구가 또 하나의 줄기이다.¹⁶⁾

15) 박영호, 『교육학 용어 사전』,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1995.

16) 정병희, 위의 논문. p.11.

스키마는 근본적으로 지식에 관한 이론이다. 지식의 개념들은 추상적, 구조적으로 머리 속에 저장되어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는 크게 어떤 특정 경험과 연관되어 기억되고 있는 일화적 지식(episodic knowledge)도 있고, 구체적인 경험적 사실로부터 추상화되고 일반화되어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개념적 지식(semantic knowledge)도 있다. 스키마는 이 두 종류의 지식 모두를 지칭하는 추상적 개념이고 이러한 스키마는 수정, 변화, 성장한다.¹⁷⁾ 스키마의 수정, 변화, 성장은 피아제(piaget)가 말하는 동화와 조절 개념과 관련된다. 동화란 새로운 지각물이나 자극 사물을 이미 가지고 있던 스키마 혹은 행동 양식에 맞도록 하는 인지 과정으로 스키마에 변화를 가져오기보다는 스키마의 성장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그리하여 동화는 개인이 환경에 적응하고 환경을 조직해 나가는 인지 과정의 일부분으로서 스키마의 성장에는 관여하지만, 스키마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인지적인 성숙과 관계되는 것이 조절이다. 조절이란 정보를 받아들이며 자신의 스키마에 맞는 형태를 선택하다가 동화의 양식이 바뀌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조절은 스키마의 변화와 수정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사람이 상응하는 스키마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쉽게 동화하지만, 상응하는 스키마가 없는 경우에는 조절이 필요하다. 동화 과정은 스키마의 확대를 통한 축자적인 의미로서의 이해, 적용에 해당하고, 조절과정은 스키마의 변화나 새로운 지식의 습득에 해당한다.¹⁸⁾

피아제(piaget)는 스키마를 어떤 방향으로 행동하는 잠재력이라고 불렀다. 그의 이론에 있어서 스키마는 유기체의 인지 구조에 있는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다. 유기체에 있는 스키마는 그 유기체가 생활환경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피아제(piaget)에 의하면 아동은 몇 가지의 감각 운동적 스키마를 갖고 태어나며 이 스키마는 환경과의 원초적인

17) 김현정, 위의 논문, p.9.

18) 한철우 외, 『과정중심 독서지도』, 교학사, 2003, pp.18~19.

상호작용의 틀을 제공해 준다. 아동 초기 경험은 이러한 감각 운동 스키마에 의하여 결정된다. 환원하면 이러한 스키마에 동화될 수 있는 사상(事象)에만 아동은 반응하며, 그리하여 그들은 아동의 경험에 한계를 설정해 주게 된다. 그러나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원래의 스키마는 수정된다.¹⁹⁾

결국 스키마는 지식이며 그 지식은 외부의 자극 즉, 환경이나 경험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하나의 텍스트에 관련되는 스키마는 독자가 속한 문화적 집단의 영향을 받게 된다. 때문에 어떤 사물이나 개념에 대한 스키마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여러 사람이 같은 글을 읽더라도 각자의 관점에 따라 글의 의미를 서로 다르게 이해한다거나 한 사람이 같은 글을 읽더라도 상황에 따라 글에 대한 반응이 달라지는 것, 이것이 바로 스키마가 글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스키마는 한 텍스트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독자를 중시하며 독자가 어떻게 독서 과정을 추리하며 창조적 의미를 형성해 내는가에 의미를 부여한다고 할 수 있다.

2) 스키마의 유형

스키마의 유형은 내용 스키마와 형식 스키마 두 가지가 있다. 내용 스키마는 사물이나 사건에 대한 기존 지식으로 영역 특수지식인 동시에 보다 일반적인 세상지식이기도 하다. 곧, 내용 스키마는 독자의 상상의 세계나 현존하는 지식에 관계된다. 독자가 화제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이 그 화제에 대한 새로운 메시지의 해석을 구조화하도록 돕기 때문에 내용 스키마는 형식 스키마보다 이해에 더 영향력을 갖는다. 우리가 읽은 것에 대한 이해와 기억이 내용 스키마에 포함된다.

형식 스키마는 글이나 이야기가 전개되는 방법, 즉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자가 전형적으로 사용하는 담화 구조나 규약에 대한 지식으로서

19) B. R. Hergenhahn 저, 김영채, 『학습심리학 입문』, 양영각, 1997, p.47.

학자에 따라서는 텍스트적 스키마라고도 한다. 형식 스키마는 구조 지식으로서 텍스트 구조 자체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곧, 형식 스키마는 독자가 가진 지식의 하나로서 독자의 머리 속에 존재하지만, 텍스트 구조는 텍스트를 구성하고 있는 정보들 간의 상호 관계로서 독자가 아닌 텍스트라는 객관적 실체 속에 존재한다.²⁰⁾ 형식스키마는 글이 어떻게 조직되는가에 대한 것으로 각기 다른 유형의 글은 각기 다른 형식 스키마를 갖게 된다. 예를 들면 설명문이나 논설문의 내용 구조가 동화, 시, 소설과 같은 글의 내용 구조와 다르다. 동화는 일반적으로 연대기적인 순서를 따르고 신문 기사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는 질문에 답하며 각기 다른 유형의 스크립트를 포함하고 있다. 글의 구조를 이해하고 규범적인 수사 구조를 토대로 예측해 내는 독자의 능력이 글의 정보를 기억 속에 정돈하는 능력을 어느 정도 결정해 준다. 우리 문화 속에 이야기가 어떻게 설명되는가, 작가들이 어떻게 전형적으로 이해에 도움을 주는가, 텍스트 형식이 어떻게 의미의 단서를 제공하는가와 같은 담화 구조와 관습의 지식, 작가와 같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우리의 예상을 안내해 준다.²¹⁾

그런데 이 두 종류의 스키마는 각각 다른 측면에서 학습에 기여한다. 내용 스키마는 그 구체성으로 말미암아 텍스트 명제의 내용 이해에 형식 스키마보다 우선하지만 전이성이 낮아서 여러 유형의 학습 자료에 직접적으로 일반화하기는 곤란하다. 이와 달리 형식 스키마는 그 추상성으로 말미암아 텍스트 내용 이해와 관련이 상대적으로 덜한 대신에, 높은 전이성으로 말미암아 여러 유형의 학습 자료에 적용할 수 있는 효용적 가치가 많다. 그리고 특정한 화제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학습자에게 정보의 범주를 구체화해서 내용 스키마의 활성을 촉진하기도 한다.²²⁾

20) 한철우 외, 위의 책, p.19.

21) 정현미, 위의 논문, pp.16~26.

이와 같이 한 사람의 인지 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스키마는 정적이지 않고 읽기 과정에서 역동적으로 개입하여 필요와 목적에 따라 그 역할을 달리한다. 독자는 읽기 과정에서 글을 자신의 인지 구조에 맞게 동화시키고, 글에 맞게 자신의 인지 구조를 조절하기도 할 것이다. 또한 그때그때 필요와 목적에 따라 작용하는 스키마의 종류도 다를 것이다. 곧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용 스키마가 작동해야 할 것이며, 구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형식 스키마의 작동이 필요하겠단다.

2. 스키마 이론과 소설 교육

스키마 이론에서 텍스트는 그 자체로 의미를 전달하지 않는다. 텍스트의 의미는 독자의 지식과 텍스트의 정보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독자가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때문에 스키마 이론은 독자의 배경지식이 읽기에 큰 영향을 주며 독자는 자신의 배경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글의 의미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는 스키마가 다르면 각각의 의미도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글은 독해 과정에서 필요한 하나의 자극체이며, 독해의 산인 의미는 독자가 구성해 내는 것이다. 독자가 읽은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고 의미를 파악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스키마의 역할이다. 스키마가 다르면 해석도 달라진다. 스키마가 풍부하게 형성되어 있으면 글을 적극적으로 이해, 감상할 수 있지만 스키마가 빈약하거나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스키마의 역할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의미는 문자에 있지 않고 독자의 기억 속에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소설 교육 방법에 있어서 학생의 스키마가 적극적으로 유도

22) 한철우 외, 위의 책, p.19.

활용되어야 한다. 소설 교육은 객관적인 사실을 가르치고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문학적 체험을 격려하는 일이며, 문학적인 체험이란 작품과 독자의 주관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의미를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²³⁾

스키마는 읽기 과정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스키마는 읽는 글의 내용을 기억 속에 표상화 하는 과정을 촉진시킨다. 또한 읽기 과정에서 글에 제시되지 않은 필요한 내용을 보충하여 준다. 하나의 스키마는 그 설명의 부분으로서 개념의 요소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관계망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사람’이라는 스키마 아래 ‘얼굴, 팔, 다리, 몸통’등과 같은 하위 스키마타가 있다. 하나의 스키마는 그 스키마를 구성하는 여러 개의 하위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하나의 하위 구성요소 아래에 하위의 또 다른 스키마가 있는 것이다. ‘얼굴’이라는 스키마 아래 ‘눈, 코, 입’이라는 하위 스키마타가 있는 것과 같다. 스키마를 구성하는 하위 구성요소는 그 자체로서 하나의 스키마가 될 수도 있고, 그 역시 하위로 다수의 하위 구성요소를 갖고 있다. 이러한 관계는 계속되어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는 수준까지 내려간다.

글을 읽게 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스키마가 선택되어 읽기에 작용하게 되는 경우 그 스키마의 하위 구성요소는 자기에게 적절한 특수 정보를 글에서 찾음으로써 그 글이 무엇에 대한 글인지 다시 말해서 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만약 다른 하위 구성요소들은 모두 자기와 적합한 정보를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하위 구성요소가 그렇지 못했다면, 스키마는 글 속에 명시되지 않은 정보를 자기가 포함하고 있는 하위 구성요소를 통하여 추론하여 채워 넣게 된다. 이는 스키마의 가장 중요한 역할중 하나이다. 모든 글은 아무리 자세하게 표현해도 그 상황이나 사건을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나타낼 수는 없다. 글쓴이는 독자가 알고 있을

23) 동희선, 「고등학교 소설 교육의 방법 연구 : 소설 작품의 주제 탐색 방법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pp.33~34.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략한다. 스키마는 이렇게 생략된 혹은 없는 부분의 내용은 추론을 통하여 메워 넣는 것이다. 이는 독자가 어떤 글을 읽고 글쓴이가 직접 언급하지 않은 부분을 알고 있는 경우이다. 따라서 스키마가 읽기와 기억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여기서 스키마가 하는 기능²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스키마는 읽기 자료에 담긴 정보를 받아들이기 위한 이상적 지식 구조를 형성하여 주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을 좀 더 쉽고 유용하게 받아들일도록 한다. 때문에 읽기 과정은 의식적인 지적 노력 없이 이루어진다.

둘째, 스키마의 기능은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판단을 도와준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알고 구별해서 중요한 것에 많은 집중을 하도록 한다. 그리하여 중요한 정보를 더 선택적으로 받아들일도록 한다.

셋째, 추론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 이는 스키마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다. 모든 글은 아무리 자세하게 표현해도 그 상황이나 사건을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쓸 수는 없다. 또한 글쓴이가 직접 언급하지 않은 부분을 독자는 글을 읽으면서 추론을 통하여 메워 놓는다.

넷째, 학습 자료의 요약과 편집을 수월하게 도와준다. 독자들은 스키마를 가지고 있는 글로부터 좀 더 쉽게 주제를 구성할 수 있다. 또한 독자들은 좀 더 의미 있게 정보를 재구성하고 이미 논의되었거나 알고 있는 부분을 검토하거나 사소한 것을 빼고 요약한다. 읽은 내용을 모두 이해하고 기억한다 할지라도 마치 글자 그대로 똑같이 기억해 내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기억은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별 의미가 없다. 스키마는 그 자체가 중요성의 판단 기준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독자로 하여금 요약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이미 독자의 머리 속에 재편집되고 요약되어 있는 것이다.

다섯째, 스키마는 정보 탐색에서 순서와 절차를 마련해준다. 예를 들면 자동차에서 운전자가 내려서 자동차 문을 잠근다는 것은 자가용 승차 스키마

24) 김현정, 위의 논문, pp.16~18.

가 승차 하차에 대한 어떤 순서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여섯째, 스키마는 수많은 정보들을 어떤 일관성 있는 형태로 재구성하여 준다는 것이다. 우리 머리 속에서는 현존하는 구조들 속의 핵심사항을 짚아 놓고 일반적인 지식을 사건들을 재구성하는 데 사용한다.

이와 같은 스키마의 여러 가지 기능을 통해서 우리는 소설교육에 있어서 스키마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스키마는 정보를 받아들이기 위한 이상적인 지식 구조를 형성하여 새로운 지식을 좀 더 쉽고 유용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기 때문에 소설을 교육하는데 있어서 스키마의 자극이 필요하겠다. 이에 교사의 역할은 기존 스키마를 활용하여 소설을 읽을 수 있도록 준비 과정에서 주의 환기를 시켜주는데 있다. 다시 말하면 소설 텍스트를 읽기 전에 소설에 대한 체험을 환기시켜 줌으로써 스키마를 자극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학생들의 스키마가 소설 읽기에 적합하지 못하거나 미비할 경우 배경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하지만 읽기 전 활동의 부정적인 측면²⁵⁾으로 만약 교사가 생각하는 배경지식을 학생들이 갖고 있지 않다면 교사는 교사가 정해 놓은 배경지식이 무조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자신의 생각을 배경지식으로 주입할 것이라는 우려이다. 따라서 읽기 전 활동이 지나치게 교사가 배경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넘어서 주입하는 방법의 학습법은 옳은 지도 방법이 아니다.

스키마는 수많은 여러 정보들을 일관성 있는 형태로 재구성하여 준다. 이것은 학습자가 소설 텍스트를 읽으면서 줄거리를 파악하고 구조화할 수 있는 능력이 스스로 있음을 뜻한다. 때문에 학생들은 소설을 읽으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스키마를 통해서 스스로 줄거리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스키마는 많은 정보 중에서 필요한 정보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며 그 내용을 재편성하고 요약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텍스트의 내용을 요약하고 주

25) 읽기 전 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한 연구 논문을 보면 읽기 전 활동이 학생들의 배경지식을 한정시키는 데 있다고 한다.

제를 파악할 수 있는 기능으로 소설을 읽은 후에 소설의 내용을 재편성하고 내용을 요약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스키마의 기능을 활용하여 소설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소설을 읽기 전에는 먼저 소설에 대한 흥미유발로 스키마 활성화를 통하여 주의 환기를 할 수 있으며, 소설을 읽는 중에는 스스로의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추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마지막으로 소설을 읽은 후에는 소설을 재구성 할 수 있는 기능을 소설 지도에 있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문학 수업에서 바람직한 학습자는 문학작품을 단순히 분석, 이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문학 교육이 할 일은 독자가 작가와 더불어 작품 세계를 공유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한 학습 전략은 무엇보다 학습자를 중심에 놓고, 그들이 지닌 성향 가운데 동일시 감정을 최대한 발휘시켜서 문학 작품의 세계에 빠져들도록 유도함으로써 직접 문학 세계를 체험하도록 하는 것이다.²⁶⁾

스키마 이론은 교사에게 학습자를 가르치는데 있어서 학습자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이나 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무엇을 알고 있으며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느냐를 파악하는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때문에 스키마 이론을 통한 소설교육은 학습자 입장에서 먼저 고민하여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러한 교육은 교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사는 학습자의 배경지식을 점검하고 활성화하며 학습자가 읽는 과정을 통하여 내용을 추론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그에 맞는 적절한 학습법을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26) 신현재, 「문학 교육의 교수학습 전략」, 『한국어문교육 제7집』, 한국어문교육연구소, 1998, p.3.

Ⅲ. 소설 교육에서 스키마 활용 방안

1. 스키마 활성화 필요성

소설 작품 지도에서 작품의 의미를 파악하고 작품의 가치를 내면화하고, 작품의 감동을 심화하는 것은 능동적인 작품 읽기에서부터 비롯된다. 작품의 곳곳에 숨어 있는 작가의 상상력, 인물 행위의 인과 관계는 독자가 자기 인식의 능동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작품 속에 참여하여 작가나 작중 인물과 함께 생각하고 느낄 때 그 생명력을 얻고 내면화된다. 이러한 능동성의 동기가 될 수 있는 것이 스키마이다.²⁷⁾ 작품을 읽을 때 능동성의 동기가 될 수 있는 스키마를 소설교육에 있어서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바로 스키마의 활성화이다. 스키마를 활성화시킴으로서 독자, 즉 학습자는 작품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좀 더 깊이 있게 작품과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것이며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스키마의 활용은 교사가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활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보다 체계적이고 의도적인 활용방안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학습자는 작품에 좀 더 흥미를 갖게 될 것이고 이는 능동성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스키마 이론에 따르면, 독자는 이전에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글을 읽을 때 영향을 미쳐 새로운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고 한다. 또한 새로운 정보를 독자의 기존 배경지식과 관련시킴으로써 학습을 촉진시킨다. 사전활동은 읽게 될 내용에 대하여 준비시켜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내용을 사전 지식과 의미 있게 관련시킴으로써 적극적인 읽기를 도와줄 것이다.²⁸⁾

결국 스키마의 활성화는 학습자의 흥미와 학습 동기를 유발하며 기존 배

27) 이향숙, 「소설교육의 방법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1988, p.90.

28) 김창호, 위의 논문, p.40.

경지식과 연관되어 학습을 촉진시킨다. 때문에 적극적인 읽기 활동에 스키마 활성화는 꼭 필요하다.

2. 스키마 활성화 지도방법

스키마 이론에서는 학습자의 능동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학습자의 능동적인 독해 활동을 유발하도록 한다.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배경지식을 최대한 활용하고 교사는 학생에게 스키마를 활성화 시키는 지도 방법으로 학생이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인 태도로 수업에 임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줘야 한다.

다음은 스키마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²⁹⁾이다.

1) 질문하기

‘질문’은 스키마 진단의 가장 일반적이면서도 포괄적인 형식이다. 질문은 스키마를 활성화시킴으로써 투입되는 정보와 학습자가 가진 기존 지식과의 상호 작용을 활발히 이루어 주기 때문에 학습을 증진시키게 된다. 따라서 질문 유형은 학습 자료 내용과 기존 지식의 상이한 상호작용을 유발하여 학습 정보를 달라지게 만든다.³⁰⁾

읽기 전 질문의 경우는 목표 제시와 같이 학습 내용을 미리 소개하는 기능으로 작용한다. 읽기 전 질문이 학습자에게 제시될 때에는 일련의 학습 내용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주의를 끌 것이라고 기대된다. 학습자는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인지 전략을 채택하여 질문과 관련 없는 학습

29) 한철우 외, 위의 책, pp.26~31.

30) 이금희, 「질문 자료의 삽입 위치와 질문 유형에 따른 학습 자료의 활용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p.38.

내용은 제외하고 질문과 상응된 학습 내용은 촉진시킨다. 이러한 과정에서 읽기 전 질문은 질문과 관련되지 않은 학습 내용은 억제시키므로 특정 부분의 학습 내용을 학습, 기억하도록 하는 목적일 경우에 유용하다.³¹⁾

질문은 간단하게 묻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교육적, 의도적인 계획 하에 질문하는 것으로 발전할 수 있다.

가. 교사가 학습자에게 하는 질문

교사가 학습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알고 있는지를 묻는 것으로서 질문을 했을 경우 이에 대한 학습자들의 반응을 통해 교사는 학습자들의 스키마를 진단 및 인출 할 수도 있고, 학습자들에게 더 구체적인 대답을 요구하면서 스키마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제목이나 삽화를 통해서 질문을 하면 더욱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제목은 독자가 글을 대할 때 제일 먼저 접하게 되는 부분이므로 스키마를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스키마를 활성화시키는데 매우 유용하다. 그리고 삽화는 글의 세부적이면서 부분적인 내용과 바로 연결시킬 수 있는 독자와 글의 중간 매개체이다. 독자는 글 내용과 연관된 삽화를 통해서 먼저 글의 내용을 생각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이 제목을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나는가? 이 글은 어떤 분위기의 글 인가? 이 제목에는 어떤 소설 내용이 어울릴까? 이 그림은 어떤 분위기로 느껴지는가? 이 그림은 지금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등의 질문을 해 볼 수 있겠다.

나. 학습자가 만드는 질문

배울 학습과제를 보면서 학습자들이 직접 질문을 만들도록 시간을 준다. 5~6개 정도의 질문을 만들고 그 질문에 스스로 답해보도록 한다. 그리고

31) 이금희, 위의 논문, p.39.

만든 질문을 친구끼리 서로 답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여겨진다. 여기서 학습자가 만든 질문은 그들의 스키마와 인지 발달을 반영한다. 교사는 이를 통해 정보의 진단적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읽기 중에 학습자가 만드는 질문은 글 내용의 적극적인 이해와 관련이 있다. 질문을 만드는 동안, 학습자는 적극적인 사고를 하고 능동적인 자세에 임하여 학습 내용을 적극적으로 보게 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2) 연상하기

연상이란 하나의 관념이 다른 어떤 관념을 불러일으키는 심리 작용이다. 학습자들의 연상을 통하여 그들이 갖고 있는 스키마를 교사들이 알 수 있게 되며 그 주변적인 범주나 의미를 불러 일으켜 스키마를 활성화시킬 수 있게 된다. 교사는 이 ‘연상하기’ 과정을 통해서 학습자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스키마에 대하여 측정하고 헤아릴 수 있게 된다. 또한 학습자들의 발표나 표현을 통해서 학습자들의 어휘력이나 지적인 능력도 함께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물론 교사는 이를 통해 학습에 더 필요한 스키마를 보강해줄 수 있는 계획도 세울 수 있게 된다. 학습자들은 자신들이 연상한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숙고할 기회를 갖게 된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자신이 연상한 내용과 제시된 개념이나 구절의 관계를 생각하게 될 것이며, 제시된 내용에 대해 더 많은 사고를 하게 됨으로써 기존 스키마를 활성화시키게 될 것이다.

가. 자유 연상하기

연상하기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서 학습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연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연상된 것을 자유롭게 표현함으로써 스키마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이다.

학습자들에게 주제나 혹은 제목을 알려주고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한다거나 떠오른 것을 말하도록 한다. 또는 글과 연관되는 그림이나 글을 제시하고 연상되는 것을 말하게 한다. 자유 연상하기를 통해서 학생들의 기존 배경지식을 알 수 있다.

나. 연상되는 단어 말하기

학습할 단원 중 핵심적인 단어를 들고 그 단어를 보면서 생각나는 단어가 있으면 말해보도록 학습자들에게 유도한다. 글을 읽기 전에는 학습자들이 자신이 잘 모르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감정적, 직감적 혹은 어렴풋이 알고 있는데 설명을 못하는 단어에 대해서 그 주변적인 뜻을 지니는 단어가 연상되게 마련이고 이를 말하게 한다. 글을 읽은 후에는 자신의 배경지식과 함께 글의 내용에서 새롭게 알게 된 단어가 떠오를 것이다. 글의 내용을 통해 연상되는 단어는 기존스키마와 새로운 스키마의 재편집, 재구성되어 말하게 된다.

다. 연상되는 이유 말하기

연상되는 이유 말하기는 자신이 스스로 연상한 것에 대한 이유를 찾으면서 좀 더 깊이 있는 사고를 통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교사는 학습할 단원에서 몇몇 개념이나 구절을 고른다. 그 개념이나 구절을 학습자들에게 들려주고 마음에 떠오르는 것을 말하도록 한다. 학습자들에게 자신이 연상한 것을 보며 “왜 이 생각을 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도록 한다.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적게 하여 발표하게 하고 학습자들은 자신들이 말한 이유를 생각하며 친구의 발표를 비교해 보기도 한다.

3) 추론하기

읽기에서의 추론은 적극적인 사고 과정이다. 왜냐하면 독자는 자료의 임의 가설을 제안하고 평가함으로써 지식을 발전시키기 때문이다. 글을 읽을 때 자료의 정보와 학습자의 배경 지식을 통합하여 그 둘에 일치하는 글을 이해하는 것은 물론 저자가 제시한 정보를 파악하고 글을 이해하며 기억하는 데 추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³²⁾

추론은 보통 글을 읽으면서 그 다음에 올 내용에 대한 것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이는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스키마와 글의 정보가 합쳐져 일치된 해석을 내는 것이므로 읽기 중의 단계에서 유용하다고 여겨진다. 내용을 추론함에 있어서 읽기 자료로 삽화를 제시해도 좋겠다.

가. 경험에 의한 추론

경험에 의한 추론은 자신이 직접적으로 한 경험과 간접적으로 한 경험을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모든 경험을 바탕으로 결과를 추론하는 것이다. 학습자에게 읽을 자료나 삽화를 제시하여 이야기의 내용을 추론하게 한다.

나. 상상에 의한 추론

작품에서 보이는 모든 일들을 학습자마다 일정하게 모두 경험을 할 수는 없다. 때문에 학습자는 글의 전개 과정을 상상에 의한 추론으로 미리 예측하는 것이다. 작품의 일부분을 읽고 인물이나 사건에 대해 추론하거나 앞으로 일어날 일들과 인물의 상황을 예측해 본다.

이상의 스키마 활성화 지도 방법 이외에도 글의 내용 예측하기, 그림보여주기, 관련된 글 미리 읽기 등과 같은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학습자의 스키마 활성화를 위해서는 읽기 자료, 즉 작품의 내용에 따라 그 지도 방법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인 스키마 활성화 방법을 바탕

32) 김종규, 「추론을 통한 영어 읽기 지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p.33.

으로 작품의 내용과 주제에 맞추어 적절한 적용이 활성화 방안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IV. 스키마 활성화를 통한 소설지도의 실제

1. (소설) 교수 - 학습 모형

교수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담은 형식이 필요하다. 교수 학습 모형은 교수 학습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형식이며 절차이다. 형식의 적용이 지나칠 때에는 형식주의로 흘러 내용을 제약하기도 하지만 형식은 방향과 목표가 분명해지도록 할 수 있다.

보통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형을 대개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글레이저(Glaser)의 수업 모형을 근간으로 하는 정동화 외의 모형, 구인환 외의 모형(일반모형³³) 중 KEDI모형), 로젠블렛(Rosenblatt)의 반응 중심이론을 바탕으로 고안된 경규진의 모형(목표 모형³⁴) 등이다.

본고에서는 교수 학습의 여러 모형들 중에서 글레이저의 교수 학습 모형을 근간으로 하는 정동화 외 모형을 기초로 하여 소설 교수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모형을 구안하고자 한다. 정동화 외 모형은 일반적인 수업의 형식과 절차를 말한 것이기 때문에 수업의 특색이 드러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그 형식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그 형식만으로는 아무런 특색을 드러내지 않으며, 어떤 특정한 이론을 바탕으로 한 수업도 그 틀에 수용할 수 있다.³⁵ 물론 대체로 구인환 외의 모형을 문학수업에 적용하고 있지만 본고에서는 정동화 외 모형의 4단계의 틀을 사용하여 스키마 이론을 바탕으로 한 소설 교수 - 학습 모형을 재구성하겠다. 이러한 일반적인 모형을 기본

33) 일반 모형은 수업의 일반 현상을 설명하는 것으로, 어느 특정 수업 목표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의 일반 목적 달성을 목표로 한다. 이 모형에는 글레이저 모형, 한국교육 개발원의 KEDL모형, 완전학습 모형 등이 있다.

34) 목표 모형에는 개념 수업 모형, 창의적 사고 모형, 탐구 수업 모형, 경험 수업 모형, 역할 놀이 모형 등이 있다.

35) 박영목, 『국어과 교수학습론』, 교학사, 2001, p.360.

으로 스키마 이론을 통한 소설 교수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모형은 <표1>과 같다. 이는 학습자의 스키마가 적극적으로 유도 활용되어야 함에 중점을 두었다.

<표1> 소설 교수 - 학습 모형

1.목표	단원 및 작품 목표 설정
2.진단	읽기 전 단계 1. 진단단계 (배경지식의 유무) 2. 준비단계 (소설에 대한 체험, 스키마 자극)
3.교수 학습	읽기 중 단계 1. 추론 단계 (작품의 내용 추론, 배경지식 활성화) 2. 작품 감상과 내용 이해 단계 (신정보와 구정보의 상호작용)
4.평가	읽기 후 단계 1. 재구성 단계 (스키마 재구성) 2. 평가 단계

1) 목표

목표는 단원 및 작품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문학교육의 목표에 맞게 설정해야 한다. 구인환 등은 문학교육의 목표를 “상상력의 세련, 삶의 총체적 체험, 문화적 문화의 고양”등으로 제시하면서 소설 수업의 목표를 다음의 다섯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³⁶⁾

- 인간의 삶에 대한 심화된 체험이 이루어져야 한다.
- 허구적 상상력을 통해 현실 초극의 힘이 형성됨을 이해시킨다.
- 소설 텍스트의 상호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 소설의 재미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 민족과 민족 문화의 감수성을 계발하고, 사랑을 갖게 하고 그 적응 능력을 길러야 한다.

소설교육의 목표를 이렇게 서술하는 데는 소설의 장르적 특성과 형식적 요건을 고려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여기서 목표는 소설 교육의 큰 목표 보다는 각 단원 수업의 목표 또는 작품의 목표 설정이다. 교사는 작품의 목표를 설정할 때 작가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를 생각해 봄으로써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2) 진단

진단은 읽기 전 단계이다. 읽기 전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스키마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작품을 읽을 수 있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는 교사의 안내 역할이 필요하다. 기존의 수업은 읽기 중 단계에 가장 많은 시간을 두고 중점적으로 교수 학습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스키마를 통한 소설 수업의 경우에는 읽기 전 단계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먼저 학생들이 작품 이해에 필요한 스키마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밝아야 한다. 여기서는 질문하기를 이용하여 교사는 학생들의 배경지식의 유무를 진단한다.

질문은 읽기 지도에 오래 전부터 이용된 일반적인 지도 방법이다. 읽기 전 질문은 특히 스키마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하며, 텍스트에 언급된 여러 내용들 중에서 학생들의 관심을 특정한 부분에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36) 구인환 외, 『문학 교육론』, 삼지원, 1988, pp.232~235.

사실이 밝혀졌다. 따라서 읽기 전 질문은 텍스트를 특정한 목적을 갖고 읽는 경우나 텍스트의 어느 부분에 관심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을 때 효과적인 전략이 된다. 읽기 전 질문의 이러한 효과는 학습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텍스트의 학습에 이용하는 경우 더욱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말해 준다.³⁷⁾

진단단계 이후 준비단계에서는 작품의 제목이나 주요 단어를 교사가 선별하여 학생에게 질문하거나 연상하기를 통해 스키마를 자극시킨다. 또한 진단단계에서 배경지식의 유무 확인을 통해 교사는 적절한 배경지식을 지도할 수 있다.

3) 교수 학습

교수 학습은 읽기 중 단계이다. 읽기 중 단계에서는 추론 단계와 작품 감상과 내용 이해의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추론 단계에서는 작품의 일부분만 간단히 읽고 그 결과를 추론하게 한다거나 삽화를 이용하여 글의 내용을 추론하게 하는 방법으로 배경지식을 활성화시킨다. 작품 감상과 내용 이해 단계에서는 이전에 얻은 배경지식을 얼마나 작품에 적용할 수 있는가에 중점을 둔다. 때문에 작품을 읽는 중간 중간에 질문을 삽입한다. 여기서 질문은 학습자들이 만드는 질문이다. 학습자들이 읽는 과정 속에 만든 질문은 적극적인 작품 감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4) 평가

평가는 읽기 후 단계이다. 읽기 후 단계에서는 재구성 단계와 평가 단계가 있다. 재구성 단계에서는 스키마가 수많은 여러 정보들을 일관성 있는

37) 이삼형, 위의 논문, 1995, pp.1046~1047.

형태로 재구성할 수 있다는데 초점을 두고 소설 작품 내용과 관련된 단어를 연상해 보고 이를 작품의 주제와 연결 지어 본다. 평가 단계는 작품속 현실과 내 현실(경험)을 비추어 보며 작품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여기서 평가는 교사가 학습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 내면화하는 단계라 하겠다. 소설교육도 객관적인 사실전달이 아니라 학습자의 문학적 체험으로 작품과 독자의 만남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는 학습자 자신의 스키마를 활용하여 능동적으로 작품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수업에서 중요하게 설정하고 학습자의 주관성을 용납하고 그것을 바른 방향으로 유연하게 조정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수용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작품에 대한 스키마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스키마 활성화를 통한 소설지도의 실제

1) 단원명

중학교 3학년 1학기, 3. 독서와 사회 (2)원미동 사람들

2) 작품 개관 및 지도방향

‘원미동 사람들’은 한 동네에 사는 도시 서민들의 애환을 따뜻한 시선으로 담담하게 그려낸 작품이다. 교과서에 실린 글은 ‘원미동 사람들’ 연작 11편 가운데 ‘일용할 양식’이다. 도시 변두리의 원미동에서 동네 슈퍼 사이에 벌어지는 고객 확보 전쟁과 그것을 이용하려 드는 주민들의 모습이 담겨 있다. 두 상점 사이의 갈등과 불화는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에서 인간들이 지

켜야 할 이해와 공존의 원리를 재치있게 환기시켜 준다.

‘원미동 사람들’은 형제슈퍼와 김포슈퍼 사이에 벌어지는 고객 확보 전쟁과 그것을 유용하게 이용하려 드는 주민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갈등과 미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비이성적인 것이며, 이기적인 뿌리를 가진 것인가를 알 수 있다. 조그만 판매 경쟁이 감정적인 경쟁 심리로 발전하고, 마침내는 이해타산을 따지는 사람들의 심리를 부추겨서 온 동네를 더 황량하게 만든다. 따라서 원미동이라는 조그만 사회를 뒤흔들어 놓은 이 두 상점의 갈등과 불화는 함께 사는 사회에서 인간들이 지켜야 할 이해와 공존의 원리가 담겨 있는 작품이다.

작가는 작품 속에서 현실의 모습을 말해준다. ‘원미동 사람들’ 또한 작품 속 현실이 실제의 현실에 존재 가능하며 독자는 그 속에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고 공감하게 된다. 따라서 ‘원미동 사람들’을 지도할 때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작품의 주제에 대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

‘원미동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교사가 가르쳐야 하는 일차적 목표이고 방향이다. 때문에 본고에서는 스키마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원미동 사람들’을 지도할 때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에 초점을 두어 스키마를 활용하고자 한다. 작가가 작품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작품 속 인물, 사건, 배경 속에 모두 녹아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소설 속 인물의 생각이나 갈등의 양상, 배경 등을 생각하며 스키마 활용 방안을 제시하겠다.

3) 지도상의 유의점

‘원미동 사람들’은 소설의 사회적, 문화적 상황을 고려하여, 이 소설을 통해 작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지를 생각하며 읽어야 한다. 따라서 이 작품의 주제를 단정적으로 못박지 않는 것이 좋다. 학생들의 다양한 반응을 통해 소설을 여러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는 것

이 좋다. 또한 소설 속의 사건과 비슷한 일을 우리 주변에서 찾아봄으로써 소설 속의 현실과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 현실의 관계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

4) 교수 학습 계획서 및 소설 지도

실제 수업에서는 총 3차시 수업으로 진행되어 있다. 여기서 읽기 전 활동과 읽기 중 활동, 읽기 후 활동을 2차시에 걸쳐 수업을 하고, 보충심화를 1차시 수업으로 계획해 두었다. 이와는 달리 본고에서는 읽기 전, 중, 후 각각 1차시에 맞추었다. III장에서 제시된 스키마 활성화 지도방법과 앞에서 구안한 소설 교수 - 학습 모형을 바탕으로 3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양귀자의 소설 ‘원미동 사람들’을 적용해 보겠다. 스키마 이론을 통한 교수 학습 계획서는 <표2>와 같다.

<표2> 교수 학습 계획서

구분		교수 ·학습 내용	차시
1.목표	단원 및 작품 목표 설정	· 소설 속의 현실과 실제 현실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 작가가 말하려는 주제를 알 수 있다.	
2.진단	읽기 전 단계 1.진단 단계 2.준비 단계	· 질문하기와 연상하기를 통해 스키마 자극 예: ‘원미동 사람들’ 제목에서 떠오르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동네 특징은 어떠한가? ‘원미동 사람들’ 거리의 느낌은 어떠한가 발표해보자. 작품의 첫 문장을 읽고 원미동 사람들에게 생긴 난처한 일이 무엇인지 연상하여 발표해 보자.	1 차 시

3.교수 학습	읽기 중 단계 1.추론 단계 2.작품 감상과 내용 이해 단계	· 작품의 내용 추론하기. (배경지식 활용) 예:그림 속의 인물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삽화를 보고 어떤 내용인지 이야기를 간략하게 써보자. · 학습자가 만드는 질문. 예:인물에 대한 의문점을 질문한다. 사건에 대한 의문점을 질문한다.	2차시
4.평가	읽기 후 단계 1.재구성 단계 2.평가단계	· 재구성하기. 예:작품을 읽은 후 연상되는 단어와 그 이유를 적어본다. · 평가. 예:우리의 이웃은 어떤 사람일까? 작품 속 현실과 나의 현실을 돌아보자.	3차시

1) 목표

‘원미동 사람들’은 중학교 3학년 1학기 3단원 독서와 사회에 수록된 작품이다. 교과서 단원의 길잡이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 단원은 읽는 이의 경험이나 처한 환경, 사회적, 문화적 차이에 따라 글을 다르게 읽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보려 함에 있다.³⁸⁾ ‘원미동 사람들’을 읽고 이 소설의 사회적, 문화적 상황과 이 소설을 통해 작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지를 생각해 봄으로서 가난한 동네의 이웃 간에 벌어지는 갈등과 이해를 생각하는 기회를 가진다. 또한 소설 속의 사건과 비슷한 일을 우리 주변에서 찾아봄으로써 소설 속의 현실과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 현실의 관계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³⁹⁾

38) 교육인적 자원부, 「국어3-1」, p.71.

39) 교육인적 자원부, 「중학교 국어과 교사용 지도서」, 2003, pp.158~171.

수업에서 목표는 교사가 학생에게 지도할 때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다. 또한 수업에 있어서 목표는 그 수업의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일 이므로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단원 설정의 이유에 알맞은 목표를 정하여 수업의 방향성을 제시하려 한다.

단원의 목표

- ① 소설 속의 현실과 실제 현실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 ② 작가가 말하려는 주제를 알 수 있다.

2) 진단

진단은 읽기 전 단계로 기존 수업의 도입 부분에 해당한다. 기존 수업에서 읽기 전 단계는 읽기 중 단계에 앞서 간단히 학습하는 차원이었다. 스키마 이론은 배경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각각의 배경지식에 따라 글의 해석이 다를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작품을 읽기 전에 배경지식의 유무와 배경지식의 활성화가 이루어 져야 한다. 때문에 기존 수업에서 도입에 해당하는 수업을 1차시 분량의 수업으로 정하였다. 따라서 읽기 전 단계를 도입이라 하기 보다는 본시 학습의 첫 단계로 생각한다면 도입부분의 소홀함이 덜 할 것이라 생각한다. 읽기 전 단계도 두 단계로 나누어 살펴 보겠다.

가. 진단단계

진단단계에서는 작품에 대한 배경지식 유무를 확인한다. 스키마 활성화 방법 중에 질문하기를 이용하여 수업을 진행한다.

- 질문하기 (교사가 학습자에게 하는 질문)

ㄱ. ‘원미동 사람들’ 제목에서 떠오르는 것은 무엇인가?

ㄴ. 우리 동네 특징에 대해 써보자.

위의 두 질문은 모두 배경지식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다. 학생의 활동은 수업 시간에 개별 활동으로 이루어지며 각각의 학습지를 작성하여 발표하는 것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학습 활동지 1 : 예시>

읽기 전 단계	
3학년 ○반	이름 ○○○
질문하기 (교사가 학습자에게 하는 질문)	ㄱ. ‘원미동 사람들’ 제목에서 떠오르는 것은 무엇인가?
	A :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하는 이야기 일 것 같다. 예를 들면 요즘 ‘놀라운 대회 스타킹’이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나오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동네 일 것 같다.
	B : 원미동이라는 동네 이름은 작가가 지어낸 동 이름일 것이다. 예를 들면 원망하고 미워하는 동네 또는 원래부터 아름다운 동네라는 이름으로 작가가 만들어낸 동네라는 생각이 든다.
	ㄴ. 우리 동네 특징에 대해 써보자
	A : 우리 동네는 아파트보다는 일반 주택이 많다. 주변에 새로 들어선 아파트도 있기는 하지만 오래전에 지어진 주택들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곳곳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고 동네에 새 건물이 별로 없어서 동네가 지저분하다는 느낌이 든다. 그렇지만 근처에 큰 도서관도 있고 레포츠 공원도 있고 산도 있다. 그리고 동네시장은 마트보다 물건도 싸고 시장 아줌마들의 인정이 넘치는 곳이기도 하다.

질문하기 (교사가 학생에게 하는 질문)	B : 우리 동네는 아파트 단지가 많은 동네이다. 그래서 공원은 아파트 공원을 이용하고 가게도 상가 가게를 이용한다. 슈퍼는 상가 슈퍼가 하나 있는데 물건 값이 너무 바싸다. 그래도 슈퍼가 하나뿐이라 급할 때는 그곳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부모님이랑 주말에는 대형마트를 이용해서 물건을 한꺼번에 많이 구입해 오기 때문에 그곳 슈퍼는 자주 가지 않는다.
--------------------------	--

나. 준비단계

준비단계에서는 작품을 읽기 전에 작품에 대한 관심을 높여서 학생들의 궁금증을 유발하고 작품에 대한 배경지식을 활성화시킨다. 스키마 활성화 지도 방법 중 연상하기를 이용한 수업을 진행한다.

· 연상하기 (자유연상하기)

ㄱ. 교사가 제시한 ‘원미동 사람들’의 거리를 사진과 글을 보고 자유롭게 연상한다.

<그림1 ‘원미동 사람들’의 거리40>



40) 부천시 원미구청 앞마당 끝자락에 원미동 사람들의 거리를 조성해 놓았다. 그곳에 그려진 원미동 사

원미동 23통의 모양새를 알기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것은 흡사 장터 객줏집의 국자와 같은 꼴이었다. 국자의 손잡이 부분에 원미지물포, 그 위 행복사진관, 씨니전자, 강남부동산, 우리정육점, 서울미용실 등이 한켠으로 촘촘히 박혀있고 맞은편에는 강노인이 푸성귀를 일궈먹는 밭과 무궁화연립, 그리고 김반장의 형제슈퍼가 자리잡고 있었다. 손잡이가 끝나고 종구라기 모양의 몸통이 시작되는 부분은 노상 이것저것 잡다한 종류의 가게가 문을 열었다가는 슬그머니 사라지고 또 누군가가 새로운 가게를 열었다가는 이내 문을 닫곤 하는, 말하자면 원미동 23통의 사각지대였다.⁴¹⁾

- ㄴ. ‘원미동 사람들’거리의 느낌은 어떠한가 발표해보자.
- ㄷ. ‘원미동 사람들’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일지 적어보자.
- ㄹ. 작품의 첫 문장을 읽고 원미동 사람들에게 생긴 난처한 일이 무엇인지 연상하여 발표해보자. (등장인물을 생각해서 구체적으로 연상해 보자.)

원미동 사는 사람들은,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원미동 23통 5반 사람들은 이 겨울 들어 아주 난처한 일이 하나 생겼다.⁴²⁾

이 모든 수업은 학습자가 직접 생각하고 작성해야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학생에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주도록 한다. 때문에 너무 많은 질문으로 인하여 학생들이 작품을 접하기도 전에 그 흥미를 떨어뜨려서는 안되며 학생이 질문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교사는 자유로운 분위기

람들의 거리를 사진으로 옮겨 제시해 보았다.

41) 양귀자, 「찾집 여자」, 『원미동 사람들』, 살림, 2006, p.206.

42) 양귀자, 「일용한 양식」, 위의 책, p.233.

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생들이 자유롭게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발표에 정답이 없음을 강조하고 어떤 의견이든 받아들인다.

<학습 활동지 2 : 예시>

읽기 전 단계	
3학년 ○반	이름 ○○○
연상하기 (자유 연상하기)	ㄱ. '원미동 사람들'의 거리 느낌은 어떠한가 발표해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겨워 보인다. - 건물이 너무 딱딱따닥 붙어 있어서 답답한 느낌이다. - 오래된 건물들이 많아 보인다. - 아파트가 없는 동네이므로 하늘이 잘 보일 것 같다. -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동네라서 항상 시끄러울 것 같다. - 어른들의 동네일 것 같다. (장사하는 어른들이 많고 놀이터도 없으니까)
	ㄴ. '원미동 사람들'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일지 적어보자.
	원미지물포 아저씨, 행복사진관 아저씨, 씨니전자 아저씨, 강남 부동산 아저씨, 우리정육점 아저씨, 서울미용실아줌마, 강노인, 아이들, 김반장, 새로 가게를 개업하는 상인 등.
	ㄷ. 작품의 첫 문장을 읽고 원미동 사람들에게 생긴 난처한 일이 무엇인지 연상하여 발표해보자. (등장인물을 생각해서 구체적으로 연상해 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제슈퍼에 매일같이 물건이 없어지는 일이 발생한다. - 내년 봄에 근처에 주상 복합 아파트가 들어선다. - 원미동 23통 5반에 재개발 사업이 시작된다. - 같은 가게가 여러개 생긴다. 	

연상하기 (자유 연상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술주정뱅이가 가게 장사를 방해 한다. - 서울 미용실의 아주머니가 어느 날 미용일을 할 수 없게 되자 동네 사람들이 저렴한 미용실을 이용할 수 없게 되고 역 근처 큰 미용실을 이용하는 불편을 겪게 된다.
----------------------	--

3) 교수 · 학습

교수 · 학습은 읽기 중 단계로 본시 학습의 두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본격적인 작품 읽기에 들어간다. 읽기 전 단계 학습을 통해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원미동의 거리를 보여주었고 원미동 사람들에게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작품 서두를 통해서 언급해 주었다. 결국 학생들은 소설의 배경을 알게 되었고 등장인물과 사건을 추측해 본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읽기 중 단계에서는 작품 속 내용을 확인하는 수업으로 추론하기와 질문하기를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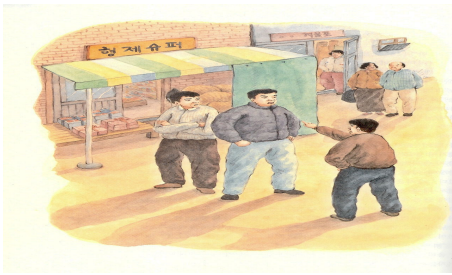
가. 추론단계

추론단계에서는 교사가 제시한 학습 자료나 작품의 일부분을 통해서 ‘원미동 사람들’에 등장하는 인물과 작품 내용을 추론한다. 먼저 삽화를 보여줌으로써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과 배경, 사건을 추론해 본다. 삽화를 통해서 연상한 내용은 각자의 배경지식에 따라 다르게 추론할 것이다.

· 추론하기 (경험에 의한 추론)

ㄱ. 교과서에 나오는 삽화를 교사는 따로 제시하여 보여준다.

<그림2 '원미동 사람들' 삽화43)>




43) 교육인적 자원부, 「국어3-1」, pp.87~107.

- ㄴ. 7개의 삽화를 보고 삽화에서 보이는 그대로를 글로 옮겨 적는다.
- ㄷ. 그림 속의 인물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 ㄹ. 삽화를 보고 어떤 내용인지 이야기를 간략하게 써보자.

작품에 그려진 삽화를 먼저 보여줌으로 해서 학생들은 작품 ‘원미동 사람들’에 대해서 대략적인 배경과 인물, 사건을 추론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추론단계는 학생이 작품을 집중해서 읽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학생들은 자신이 추론한 것과 비교하면서 작품을 읽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품을 읽는 것보다는 작품을 읽는데 있어서 더 집중해서 읽으리라 본다. 또 추론한 내용을 발표하게 하여 다른 학생의 생각을 들어보고 자신의 생각과 비교해 본다.

<학습 활동지 3 : 예시>

읽기 중 단계	
3학년 ○반	이름 ○○○
추론하기 (경험에 의한 추론)	ㄱ. 7개의 삽화를 보고 삽화에서 보이는 그대로를 글로 옮겨 적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제 슈퍼 앞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 김포 슈퍼라는 가게의 모습이 보인다. 가게 앞에는 주인 아주머니가 한 손님에게 물건을 팔고 있다. - 형제 슈퍼라는 가게의 모습이다. 가게 앞에는 쌀 연탄이라고 쓰인 입간판이 놓여 있다. 손님은 한 사람도 없고 주인 아저씨만 보인다. - 싱싱청과물이라는 가게의 모습이다. 가게 유리 문에는 ‘부식일절 가게 안에 있음’이 쓰여 있다.

<p>추론하기 (경험에 의한 추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씨니 전자 가게 앞에서 6명의 아주머니 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한 아주머니가 김포슈퍼와 형제슈퍼를 떠올리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 아주머니 손에는 물건을 산 듯 비닐봉지가 들려있다. - 한 아주머니가 슈퍼에서 물건을 사고 주인 아저씨께 돈을 준다. 슈퍼 안에는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이 2~3명 더 있고 주인 아주머니로 보이는 분은 물건을 사가지고 나가는 손님을 슈퍼 문 앞까지 가서 배웅을 한다. 슈퍼 주인 아저씨의 얼굴도 밝다.
	<p>ㄴ. 그림 속의 인물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p>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margin-left: 2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포슈퍼는 물건을 너무 바싸게 판단 말이야, 그리고 형제슈퍼는 주인아저씨가 너무 친절하다구. 이제부터는 새로 생긴 저 싱싱청과물을 이용해야지. 흥! </div> </div>
	<p>ㄷ. 삽화를 보고 어떤 내용인지 이야기를 간략하게 써보자.</p>
<p>한 동네에 슈퍼가 세 곳이나 있다. 형제 슈퍼와 김포슈퍼는 원래 서로 형제지간이라 같은 슈퍼를 운영하더라도 문제를 삼지 않았다. 그런데 싱싱청과물은 그렇지 않다. 하지만 싱싱 청과물 주인은 항상 부지런하고 손님들에게 친절하다. 그래서 가게에 손님이 많은 편이다. 동네 사람들도 모두 싱싱청과물이 더 좋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그런 싱싱청과물에 대해 형제슈퍼와 김포슈퍼는 화가 났다. 그러던 어느 날 싱싱청과물에서 판매하는 부식의 재료가 모두 싸구려 중국산을 썼다는 소문이 난다. 그러자 김포슈퍼와 형제슈퍼에 손님이 늘어나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싱싱청과물 주인은 형제슈퍼에 가서 싸움을 하는데…….</p>	

나. 작품 감상과 내용 이해 단계

작품 감상과 내용이해 단계에서는 작품을 읽는 도중에 학습자가 만드는 질문을 통하여 토의학습 형태로 수업을 진행한다.

· 질문하기 (학습자가 만드는 질문)

ㄱ. 인물에 대한 의문점을 질문한다.

예) 고흥택이 경호네를 왜 부러워 할까요?

김반장은 왜 어려운 형편에 가게를 무리해서 확장했나요?

싱싱청과물 가게 주인은 꼭 슈퍼가 두 곳이나 있는 곳에 와서 장사를 시작했어야 했나요?

ㄴ. 사건에 대한 의문점을 질문한다.

예) 김포 슈퍼와 형제슈퍼는 물건 값을 낮추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는 없었을까요?

김포슈퍼와 형제슈퍼는 왜 동맹을 맺어서 싱싱청과물의 장사를 끝까지 방해 했을까요?

김포 쌀 상회는 왜 가게를 확장하는데 슈퍼로 확장했을까요?

학습자가 만드는 질문은 읽기 중에 적극적인 작품 감상과 내용이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쉽지 않은 활동이 될 것이다. 또한 학습자가 만드는 질문은 토의학습 형태의 수업으로 학습자들 간에 서로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여기서는 자신의 처한 환경에 따라 각각 작품 속 사건과 인물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를 수 있겠다.

<학습 활동지 4 : 예시>

읽기 중 단계	
3학년 ○반	이름 ○○○
상호작용하기	ㄱ. 토의 주제
	싱싱청과물 가게 주인은 꼭 슈퍼가 두 곳이나 있는 곳에 와서 장사를 시작했어야 했는가?
	ㄴ. 토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슈퍼가 있는 곳이 사람들이 많이 다닌다고 생각해서 - 기존 슈퍼가 있는 곳이 장사가 잘된다고 생각해서 - 싱싱청과물 가게 주인은 자기 좀 더 싸게 팔면 다른 가게보다 더 많이 팔 것이라고 생각해서 - 다른 두 슈퍼가 팔지 않는 것을 팔면 장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 원미동은 잘 사는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가게세가 다른 곳 보다 싸다고 생각해서
	ㄷ. 토의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싱싱청과물 주인은 슈퍼가 두 곳이나 있는 곳에서 슈퍼를 차려도 두 곳에서 팔지 않는 물품을 팔면 장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곳에 슈퍼를 하게 된 것 같다. 또한 주변 지역보다 비교적 가게세가 저렴한 곳을 택했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싱싱청과물 주인은 슈퍼를 개업하기 전에 다른 두 슈퍼 주인과 합의를 본 후에 가게를 차렸어야 했다는 결론을 얻었다.

4) 평가

평가는 읽기 후 단계로 재구성 단계와 평가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여기에서 교사의 평가가 아닌 작품을 읽은 후 학생들의 스키마가 처음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경험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가. 재구성 단계

스키마는 학습 자료의 요약과 편집을 수월하게 도와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학생들은 작품을 읽기 전과 읽기 중의 단계를 통해서 새롭게 얻은 스키마로 또 다른 스키마를 재구성한다. 연상하기를 통해 작품을 읽은 후 떠오르는 단어를 연상해보고 단어를 찾아보기도 한다.

· 연상하기 (연상되는 단어 말하기와 이유 설명하기)

- ㄱ. 작품을 읽은 후 연상되는 단어를 적어본다.
- ㄴ. 자신이 연상한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한다.

이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은 작품의 내용을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고, 연상되는 단어를 통해서 작품의 주제를 이끌어 낼 수도 있을 것이다.

<학습 활동지 5 : 예시>

읽기 후 단계	
3학년 ○반	이름 ○○○
재구성하기	ㄱ. 작품을 읽은 후 연상되는 단어를 적어본다.
	원미동 사람들 원미동 - 어려움, 소박, 이웃, 현실, 동네 사람들 등. 사람들 - 싸움, 이기심, 시기, 다툼, 갈등 등. 가게 - 슈퍼, 경쟁, 친절, 홍보, 장사, 동맹, 개업, 확장, 물건 값, 빈 가게 등.
	ㄴ. 자신이 연상한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한다.
	원미동 사람들의 먹고 살기 힘든 현실이 연상되었다. 그리고 원

재구성하기	미동 사람들은 사람들이 서로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심으로 인해 서로에게 피해를 주어 싸움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 장사를 통해 생활을 이어나가는 사람들에게는 경쟁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지만 함께 사는 사회에서 이웃 간에 서로 타협하고 지켜야 할 것은 지켜줘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	--

나. 평가 단계

평가 단계에서는 작품 속 현실과 나의 현실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우리 주변에서 작품 속 사건과 비슷한 일을 본 적이 있는지 생각해 본다.

ㄱ. 우리의 이웃은 어떤 사람일까?

ㄱ-1. 내가 생각하는 좋은 이웃은 어떤 이웃이며 나쁜 이웃은 어떤 이웃일까?

ㄱ-2. 기억에 남는 이웃을 적어보자.

ㄴ. 우리 주변에 작품 속 사건과 비슷한 일을 본 적이 있는지 생각해 보자.

평가 단계에서는 소설 속 현실과 실제 현실의 관계를 생각해 보고 이를 통해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무엇인가 알 수 있다.

<학습 활동지 6 : 예시>

읽기 후 단계	
3학년 ○반	이름 ○○○
평가하기	ㄱ. 우리의 이웃은 어떤 사람일까?

평가하기	<p>ㄱ-1. 내가 생각하는 좋은 이웃은 어떤 이웃이며 나쁜 이웃은 어떤 이웃일까?</p>
	<p>좋은 이웃 : 인사를 하는 이웃. 서로 먹을 것을 나누어 먹는 이웃. 이웃을 위해 조금씩 양보를 할 줄 아는 이웃. 나쁜 이웃 :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가족만 생각하는 이웃.</p>
	<p>ㄱ-2. 기억에 남는 이웃을 적어보자.</p>
	<p>우리 아파트 4층에 경찰관 아저씨 가족이 살고 있었다. 그 집에는 어린 아이들이 있어서 간혹 집에서 뛰어 다닌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런데 3층에 사는 아저씨가 경찰청에 불만을 넣어 4층에 사는 경찰관 아저씨가족은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고 한다. 3층에 사는 아저씨가 조금만 이해를 해주면 되는데 너무 한 것 같다.</p>
	<p>ㄴ. 우리 주변에 작품 속 사건과 비슷한 일을 본 적이 있는가?</p>
	<p>- 우리 동네 상가에 치킨을 파는 가게와 피자를 파는 가게가 있다. 우리 집에서는 그 두 가게에 단골로 잘 시켜서 먹었다. 엄마 말씀으로는 두 가게 모두 장사가 잘 된다고 하셨다. 그런데 몇 달 후에 같은 상가에 치킨과 피자를 같이 파는 한 가게가 생겼다. 그 가게는 치킨과 피자 가격이 그 전에 있던 치킨가게나 피자가게에서 파는 치킨이나 피자 가격보다 오천원 정도 비싸다. 하지만 오천 원만 더 주면 치킨과 피자를 한 번에 다 먹을 수 있어서 사람들이 치킨과 피자를 같이 파는 가게에 주문을 해서 먹게 되었다. 그 때문에 치킨가게와 피자가게는 장사가 되지 않아서 예전부터 있던 치킨가게와 피자가게도 치킨과 피자를 같이 팔게 되었고, 가격도 싸지게 되었다. 하지만 전에는 치킨가게 치킨이 맛있었고, 피자가게 피자도 맛있었는데 지금은 세 가게 모두 맛이 별로 없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집도 가격이 싸져서 좋기는 하지만 맛이 별로 없어서 이 세 가게에서는 사먹지 않고, 다른 동네에 있는 가게에서 치킨과 피자를 따로 시켜서 먹는다. 원미동 사람들의 김포슈퍼와 형제슈퍼, 싱싱청과물과 같은 사례가 동네 곳곳에 있다는 생각이 든다.</p>

V. 결 론

본 연구는 소설을 지도하는데 있어서 학습자의 능동적인 학습태도와 학습자 개개인의 사고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그 논의를 시작하였다. 스키마 이론은 이러한 입장에 잘 부합된다고 생각하여 이를 통해 소설을 지도하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연구를 통해서 스키마 이론을 통한 소설 교수 학습모형을 구안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스키마 활성화 방안을 실제 작품에 직접 적용하여 수업지도를 제시해 보았다.

읽기 전 단계에서는 스키마 활성화 방안에서 질문하기와 연상하기를 적용해 보았다. 질문하기는 교사가 학습자에게 하는 질문으로 학습자의 배경지식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활동으로 활용가능하다. 또한 읽기 전에 작품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고 배경지식을 활성화할 수 있게 ‘원미동 사람들’ 거리의 느낌과 작품의 첫 문장을 읽고 연상하여 발표하는 자유 연상하기 활동을 수업으로 설정하였다. 읽기 중 단계에서는 추론하기를 수업 전반에 활용하였고 교과서의 삽화를 제시하여 각자의 배경지식에 따라 내용과 인물의 생각을 추론해 보았다. 학습자가 만드는 질문을 통해서 인물과 사건에 대한 의문점을 토의학습 형태의 수업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읽기 후 단계에서는 스키마 기능에서 중요한 기능인 재구성의 기능으로 작품을 읽은 후에 연상되는 단어 말하기와 이유 설명하기를 통해서 작품의 주제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작품을 읽은 후에 작품 속 현실을 지금의 나의 현실과 비교해보고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활용해 보았다. 이는 작품을 읽고 난 후에 각자의 스키마를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배경지식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스키마 이론에 따르면 글에 나타난 정보는 글을 읽는 각자의 스키마에

따라 의미가 구성되며 독자의 능동적인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소설을 지도하는데 있어서 스키마는 새로운 학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학습자가 주제와 관련된 적절한 스키마를 갖지 못하면 새로운 정보를 이해하거나 회상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때문에 교사는 학습자에게 적절한 스키마를 제공하거나 새로운 지식과 기존 지식을 연결하는 방법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교사는 소설 지도에 있어서 학습자에게 스키마를 적절하게 제시해 주며 스키마를 활성화시켜 준다면 학습자는 스스로 작품을 감상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스키마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일반적인 방법만 사용했을 뿐 좀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또한 소설 지도에 있어서 무리하게 적용시킨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또한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여 수업을 하지 않아서 체계적인 검증을 거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부족한 부분은 수정되고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스키마 이론을 국어교과 소설지도에 있어서 실제 수업에 활용한 연구는 많지 않고 단순히 도입부분의 필요성에만 중점을 두어 수업 전반에 스키마 활용에 대한 인식이 적은 점을 느끼고 적용점을 찾아보려한 점에 큰 의의를 두고 싶다.

스키마 이론을 통한 수업은 그저 학습자 중심의 활동 수업이 아니라 학습자가 읽기를 하는데 있어서 그 방법을 교사가 제시함으로 해서 학생들이 교실 밖에서 읽기를 하더라도 자신의 배경지식을 떠올리며 읽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을 것이다. 때문에 스키마 이론을 통한 소설지도 방안 수업은 학습자 스스로 능동적인 읽기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소설 수업은 교사 위주였던 과거의 방법을 지양하고 학습자 중심으로 지도 방법이 변화 발전되어 왔지만 그 지도 내용은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실현되었는지 의문이다. 학생들은 소극적인 수용자의 입장에서 벗어나야 하며 교사는 학생들을 능동적인 학습자로

변화시키기 위한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이에 학습자의 능동적인 학습태도와 개개인의 사고를 중시하는 스키마 이론을 통한 지도 방법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앞으로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스키마 활성화에 대한 좀 더 깊은 관심으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참 고 문 헌

1. 기본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중학교 국어 3-1』, 한국교원대학교·고려대학교 국정도서
편찬위원회, 2003.

_____, 『중학교 국어과 교사용 지도서 3-1』, 한국교원대학교·고
려대학교 국정도서편찬위원회, 2003.

_____, 『중학교 교육 과정 해설 II』,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9.

양귀자, 『원미동 사람들』, 살림, 2006.

2. 단행본

구인환 외, 『문학 교육론』, 삼지원, 1988.

노명환 외, 『국어 교육론』, 갑을 출판사, 1997.

박영목 외, 『국어과 교수 학습론』, 교학사, 2001.

박영호, 『교육학 용어 사전』,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1995.

이경화, 『읽기 교육의 원리와 방법』, 박이정, 2001.

이재승, 『국어교육의 원리와 방법』, 박이정, 1998.

정길정 외, 『외국어 읽기 지도의 이론과 실재』, 한국문화사, 1996.

최운식 외, 『문학 교육론』, 집문당, 1998.

최현섭 외, 『국어교육학개론』, 삼지원, 1996.

한철우 외, 『과정중심 독서지도』, 교학사, 2003.

3. 학회지 및 잡지

- 김도담, 「텍스트 이해 교육의 접근 관점 고찰」, 『국어교육학연구 제15집』, 국어교육학회, 2002.
- _____, 「독자의 의미 표상 방법 고찰」, 『한국초등국어교육 제25집』,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2004.
- 박태호, 「반응중심 문학감상 전략과 교수-학습방법」, 『청람어문학 제13집』, 청람어문학회, 1995.
- 신헌재, 「문학 교육의 교수학습 전략」, 『한국어문교육 제7집』, 한국어문교육연구소, 1998
- 이삼형, 「스키마 이론과 읽기 지도」, 『한양어문연구 13집』, 한양대학교 한양어문연구회, 1995.
- _____, 「인지적 읽기 모델의 비판적 고찰 : 스키마 이론의 독해관과 읽기 지도 모델을 중심으로」, 독서연구제4호, 한국독서학회, 1999.
- 최정순, 「학습이론과 이독성에 바탕한 읽기수업 연구」, 『말 23/24집』,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1999.
- 한진석 외, 「Schema 이론과 읽기 지도」, 인문과학논문집 제29집, 대전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0.

4. 학위논문

- 강성희, 「질문은 통한 스키마의 활성화 방안 연구」,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경규진, 「반응중심 문학 교육의 방법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 김기원, 「스키마 이론과 영어독해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김명숙, 「스키마 이론을 적용한 읽기 활동이 고등학생의 영어 읽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김소현, 「독서지도 과정에서의 스키마 활성화를 위한 ICT 활용방안 연구」,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김현정, 「읽기 교육에서의 스키마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 김종규, 「추론을 통한 영어 읽기 지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 김주미, 「스키마 활성화를 통한 효과적인 영어 읽기 방안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김창호, 「스키마 활성화를 통한 국어과 단원 수업 도입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남유진, 「소설지도방안 연구 : 김유정의 ‘만무방’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동희선, 「고등학교 소설 교육의 방법 연구 : 소설 작품의 주제 탐색 방법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박혜경, 「소설 작품의 학습지도 방법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 손선희, 「고등학교 소설 교육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손영은, 「스키마 활성화를 통한 독서지도 방안 연구 : 황순원의 소나기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여금령, 「스키마 활성화를 통한 읽기 지도 방안 연구」,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염수희, 「독서토의를 통한 국어과 교수 학습방법 연구 : 소설읽기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오장원, 「스키마 이론에 의한 그림 제시가 고등학생의 영어 청취 이해력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유영미, 「읽기 전 스키마 활성화 전략을 통한 읽기 지도 방안」,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이금희, 「질문자료의 삽입 위치와 질문 유형에 따른 학습자료의 활용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 이명희, 「스키마 이론을 적용한 독해력 신장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이혜경, 「중학교 소설지도 방법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정병희, 「스키마 활성화를 통한 읽기 지도방법 연구 : 중학교 읽기 지도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정정구, 「학습자 중심 교육의 이론과 실제 : 박완서의 ‘옥상의 민들레꽃’을 대상으로」, 서울시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정현미, 「스키마 유형에 기초한 읽기 지도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조진경, 「스키마 이론에 기반한 수능 영어 독해 문학 분석과 지도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조현주, 「소설 중심의 독서 지도 방안 연구 : 중학교 독서지도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주경아, 「스키마 활용이 영어 독해 이해에 미치는 영향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ABSTRACT

A Study on Teaching Methods for Novels through the Schema Theory

Yu Hyun-ae

Dept. of Korean Literature
and Language Education

Graduated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literary education that has been performed up to now is not learner-centered but teacher-centered and test-oriented; that is, it has focused on delivering knowledge gained from interpretation to take a test. However, a true kind of literary education has its goal in the readers reading the work, understanding and appreciating it based on their own experience of the work.

We deem that readers encounter a literary work, read and experience it because they have interest in it. However, literary works students get to read are confined to the works in their textbooks, and teachers have an obligation to make them read the works in the textbooks. Thereupon, this study presumes that although students have to read some fixed works in their textbooks unavoidably, it is inevitable to intrigue them to read the works and have them understand and appreciate the works based on their own

experience. For this, it intends to study learning methods through the schema theory that emphasizes students' activeness and subjectivity. The author thinks that for this kind of study on learning methods, an appropriate teaching method will be a method to activate schemata. The schema theory argues that a text cannot deliver its meaning by itself but readers construct it on their own. Moreover, readers can understand and appreciate the meaning of a work through schemata they have. This suggests that readers read works using their schemata to understand them. Therefore, if teachers use teaching methods that activate the existing schemata of the readers to read the work, that is, the students so as to teach them literary works (novels, here in this article), it will be a teaching method to enhance students' activeness and subjectivity. The teaching method activating schemata will let students read literary works as a subject even when they deal with them in the outside of the classroom. Accordingly, this research suggests actual methods to teach novels by applying to novels the typical teaching methods that activate schemata.

Chapter 1, in the introduction, examines the study goals and methods and the history of advanced researches.

Chapter 2, in the schema theory and novel education, first studies the concepts and types of schemata, schema theory and its functions, and the implications that schema theory suggests to novel instruction.

Chapter 3, for methods to use schemata in novel education, examines the necessity for activating schemata and deals with the

typical methods of teaching methods to activate schemata.

Chapter 4, in the practice of novel instruction through activating schemata, suggests the teaching-learning model devised in this paper first and then applies the teaching methods examined in chapter 3 to the actual novels.

Chapter 5, in conclusion, summarizes what have been discussed before. It also asserts the necessity for the constant follow-up researches based on the deliberate attention to the schema theory.